

본문: 로마서 5:12~21

제목: 우리의 국가대표, 예수 그리스도

## - 설교 한문장 요약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 1. 대표성의 원리로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본래 의미가 어떠하든, 인생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러한 격언 뿐 아니라 사람들의 심연을 드러내는 시와 그림, 소설이나 영화 등의 예술에서도 동일한 주제를 가리킵니다. 바로, ‘인생은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죄와 사망을 그 이유로 지목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대표의 성과를 그 대표가 속한 공동체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구성원이 행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운동 선수가 국가를 대표해서 시합을 치뤄 승리하는 것을 그 나라 국민이 승리한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이를 넘어서 **모든 국민 전체가 그 국가대표선수 안에서 함께 시합을 함께 치르고 함께 승리한다는 개념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인류의 첫 대표는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인류는 아담 처럼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어도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두었으니, **아담 안에서 동일한 죄를 지었고, 심판과 정죄를 받아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인류의 두 번째 대표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부터 얻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선물(은사)로 주어져 범죄함 중에서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아 죄인이 되었고 사망의 종노릇 하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와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라는 판결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율법을 통해 죄가 더해지고 드러날 수록 은혜는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선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것,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확신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 2. 넘치는 은혜로

**인생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얻어진 영원 할 것같은 행복은 누군가의 죄악으로, 아니면 자신의 죄악으로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혹은, 죄로부터 빗겨 간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은 죽음 앞에 허무로 끝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행한 죄와 사망 때문에 인생은 행복은 커녕 비참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셨고, 율법의 모든 요구대로 의롭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고, 그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었습니다. 그의 죄 가운데 죽음이 우리의 죄 가운데 죽음이 되었고,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있어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하는 세상 속에서 의를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구원 받기 위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우리의 대표로 여기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누구 안에 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표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로 되어진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지금의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주목함으로, 다시 일어나 참 의와 순종의 본이되신 그리스도를 보다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본문: 로마서 10:9~17

제목: 오직 말씀(sola scriptura)

### - 설교 한문장 요약

“말씀을 듣기에 힘써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 1.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저의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저의 어떤 수고나 공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의 수고나 공로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조건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한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9-11절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이것을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를 것이고, 이를 통해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열려 있음을 12-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시기에 자기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하고,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고,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전파하는 자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강조점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며, 이를 이사야 52:7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보냄을 받은 자’(사도)를 통해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이 온 세상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들은 사람 모두가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님을 이사야 53:1의 말씀을 인용하며 설명합니다. 중요한 점은 복음에 대한 무관심이 아닌 불순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쩌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경험과 이에 따른 생각과 신념을 뛰어넘어 생각하지 못하는 것, 즉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정치적/군사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에게 고난과 처형을 당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에게 수 많은 고정관념들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며, 이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은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마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에 이르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 2.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믿음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며 루터는 신앙의 원리를 다섯 가지 ‘솔라(sola)’로 요약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직 말씀’(sola scriptura)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은 고사하고 알려하는 의지조차 없기에 구원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계시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진단하게 하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로부터 믿음이 있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는 말씀을 더욱 사모함으로 구원의 하나님과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 하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다시 확신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본문: 로마서 13:8~10

제목: 그리스도인의 의무

#### - 설교 한문장 요약

“새계명, 사랑을 지켜 행합시다”

#### 1. 율법(계명)의 완성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빛을 지며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마음에 커다란 짐처럼 남아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그 빛을 갚아야 한다는 의무적인 내용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빛을 갚기 위해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들을 어느정도 선에서 제한하며 살아갑니다. 빛은 사람의 마음을 억누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빛지다’(ὀφείλω)라는 단어로, 원어적으로 의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감정이나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닌 의무적인 규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무겁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초두인 1:14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빛진 자, 즉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그가 지고 있는 빛, 행해야 할 의무는 받은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는 빛’은 그 빛진 자를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의무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어서 이것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양한 사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즉, 구원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9절에서 십계명 중의 네 개의 계명을 제시하며,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18의 말씀에 요약하고 있다고(ἀνακεφαλαιώω)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문자적인 행위를 넘어서 율법의 정신, 윤리적 원리로 해석해야 하며,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3:6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πλήρωμα), 즉 율법의 본질을 충만하게 실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 2. 새로운 계명(율법)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 새계명을 주셨습니다.(요한복음 13:34-35) 이 새계명의 골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서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바울이 이야기 하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그 대상과 시기를 선택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의무(ὀφείλω)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랑을 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그리 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사랑하라”는 명령은 비현실적인 명령이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의미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는 느낌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란 감정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제시하는 사랑의 모습은 모두 이웃에 대한 태도와 행동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합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수혜를 받아 구원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세계명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애쓸 뿐인데, 이를 통해 복음이 증거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의 의무, 서로를 향한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태내고 드러내어, 많은 이들이 이 사랑으로 참여 하게 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여호수아 2:8~14

제목: 인생을 건 라합의 결단

#### - 설교 한문장 요약

“하나님을 믿음은 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결단을 하게 합니다”

#### 1. 라합이 들었던 소식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리고는 1만년 전부터 약 2~3천명의 사람이 모여 살았을 만큼 크고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이는 동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서남쪽의 애굽 문명을 잇는 무역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부요한 이 도시를 약탈 하려는 세력이 많았고, 이를 방어하려는 여리고의 군사적 수준은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애굽 노예출신의 광야 떠돌이들이 모인 오합지졸의 군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은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어쩌서 라합은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그 답을 8절 이하의 라합의 고백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에게 그들이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를 어떤 고위 관료나 지식인이 아니라, 일개 몸을 파는 비천한 운명에 내던져진 여인을 통해 듣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8절) 바로, 40년 전 그들이 믿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라합은이어서 여리고성이 겨우 두명의 정탐꾼 때문에 소동하고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 우리가 들었노라”(10절)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11절)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두번을 반복합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었고, 그래서 그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과 그 행하신 일들을 들었음에도 라합만이 여호와가 위의 하늘에서나 아래의 땅에서나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정탐꾼을 숨겼고, 그외의 모든 이들은 정탐꾼을 잡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11:31에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대로 순종하여 자신의 운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정탐꾼들을 선대(ὑπο)하였으니 자신의 가족에게 선대 할 것과 그 증표(ση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인자(ὑπο)와 진실(ἀλη)로 대우할 것을 약속합니다.

## 2. 믿음의 결단

라합의 집은 성벽에 있었고, 그렇기에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의 창문에서 줄을 내려 성 밖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을 살릴 표식을 성벽에 있는 그의 집의 창문에 달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전쟁 중에 그 집에서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20에서는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 때 라합의 집이 있는 부분만 빼고 무너진 것입니다. 이어지는 6:25절은 라합과 그 가족이 살았고, 그가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때까지 그들 가운데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합의 고백과 결단, 그리고 이를 통해 받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리고의 진멸(בִּלְחָם) 중에 라합을 구원하십니다. 라합은 홍해를 가르시고 두 왕을 진멸(בִּלְחָם)하신 하나님에 대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이스라엘의 어떠한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라합은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라합은 이 소식을 듣고, 이를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בִּלְחָם). 이것이 라합이 비상식적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멸(בִּלְחָם) 가운데서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나아가 라합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적 결단은 매우 상식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드리는 것, 휴가 기간에 수련회와 단기선교를 떠나는 것, 손해를 감수하고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등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의 신앙적 결단과 그 행위는 이 땅에서의 삶에 이득은 커녕 손해를 당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마치 라합이 정탐꾼을 숨기고, 그들을 성벽 밖으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통해 그 구원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왕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그러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이로써 세상 속에서 담대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 참고 문헌 및 설교

『NIGTC 로마서(하)』, 새물결플러스, 리처드 N. 롱네커

『NIGTC 로마서(하)』, 새물결플러스, 리처드 N. 롱네커

『NICNT 로마서』, 솔로몬, 더글라스 J. 무

『WBC: 로마서(상)』, 솔로몬, 제임스 던

『WBC: 로마서(하)』, 솔로몬, 제임스 던

『로마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서유니온, 홍인규

『현대성서주석: 로마서』, 한국장로교출판사, 폴 악트마이어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 설교 『로마서 강해』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6: 여호수아』, 대한기독교서회, 손석태

『여호수아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 묵화와신학 편집부 엮음

『엑스포지멘터리: 여호수아』, 국제제자훈련원, 송병현

『현대성서주석: 여호수아』, 한국장로교출판사, 제롬 F. D. 크리치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 설교 『여호수아 강해』 (2012. 07. 15)